

# 부정과 共起하는 지시사의 의미와 용법\*

—「そんな/そんなに」의 이중적 기능을 중심으로—

김 영 민\*\*

erumu@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들어가기                   | 3.4 「そんな+명사」의 특성           |
| 2. 선행연구                   | 4.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의 의미와 기능 |
| 2.1 「そんな」에 관한 선행연구        | 4.1 지시사 「そんなに」의 특성         |
| 2.2 「そんなに」에 관한 선행연구       | 4.2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        |
| 3.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의 의미와 기능 | 4.3 「そんなに」 vs 「あまり」        |
| 3.1 지시사 「そんな」의 특성         | 4.4 부정의 초점                 |
| 3.2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        | 5. 나가기                     |
| 3.3 「そんな」 vs 「その」         |                            |

Key word : 부정(negation), 부정표현(negative expression), 지시사(demonstrative), 이중적 의미(dual meaning), 상호작용(cooperation)

## 1. 들어가기

현대 일본어의 지시사는 일반적으로 ‘대화현장의 대상’을 가리키거나, ‘문맥지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시사가 부정표현에 사용될 경우, 이외는 서로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2810)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강사, 일본어학 전공

- (1) a.『嫌われる勇氣』という本はありますか。  
 b.いいえ、その本はありません。  
 c.いいえ、そんな本はありません。

예문(1)의 경우, 지시사『そんな』와『その』에 의해 그 의미와 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その』는 지시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そんな』는 지시사의 기능보다는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예문에서도 볼 수 있다.

- (2) a.今日はそんなに暑くない。  
 b.この料理、そんなにおいしくないね。

지시사『そんな』의 부사형인『そんなに』가 부정 술어와의 호응을 통해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앞 예문의『そんな』에서 보인 특성을『そんなに』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そんなに』가 지시사의 역할보다는 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사로 바뀌 써도 의미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 (3) a.今日はあまり暑くない。  
 b.この料理、あまりおいしくない。

이처럼『そんなに』는『あまり』와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 (4) a.今日は{そんなに/??あまり}暑くないけど、私には暑い。  
 b.この料理、{そんなに/??あまり}おいしくないけど、私にはおいしい。

위의 예문에서 주목할 점은 지시사로부터 파생된『そんなに』는 허용되지만,『あまり』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요소는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는『そんなに』를 지시성을 상실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지만,『あまり』와는 다

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추측을 가능케 한다. 즉, 이들의 지시성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기에, 부정문에서 「あまり」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부정표현의 연구에서는 지시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정표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지시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そんな/そんなに」의 이중적 기능, 「そんな/その」 및 「そんなに/あまり」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통해 부정과 공기하는 지시사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そんな」에 관한 선행연구

金水(1989)는 「そんなX」와 부정의 술어가 결합하면 강한 부정의 느낌을 수반하기 때문에 「{その/そういう/そういった}X」와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そんな本は読まない」와 「そういう本は読まない」가 사용되었을 때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전자는 그런 ‘이상한/품격 떨어지는/저속한... 책은 읽지 않는다’는 강한 비난의 감정이 드러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급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여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의 특징을 잘 지적해 주었다.

鈴木(2005)는 「そんなN」에 나타나는 감정/평가적인 의미의 실태를 조사한 후, 「そんなN」이 「もの/こと」등과 결합할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밝혀내었다. 또, [そんな+형용사+명사]의 형태를 할 경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와의 결합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하고, 「そんな」가 관용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

1) 金水敏・木村英樹・田窪行則(1989)는 『指示詞』くろしお出版, p.54에서 “否定の述語と組み合わせられる場合、「そんな」を用いると強い非難の調子を感じさせる「そう言う」や「そういった」を用いれば、比較的客間的な表現になる”라고 언급한다.

였다.

深見(2007)는 일본어교육의 입장에서 「その」와 「そんな」를 비교·고찰하였다. 일본어교육에서는 지시사의 교육에 「そんな」의 특성이나 「その」와의 차이점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바람직한 지시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そんな」에 관한 교육에 일정 시간을 배당해야 한다<sup>3)</sup>고 주장하였다.

이상, 「そんな」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부정적인 감정/평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 이것이 부정술어와 결합하면 강한 부정의 느낌이 수반되고, 특히 「もの/こと」와 결합할 경우 부정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수식어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 의미의 표현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정과 공기하는 「そんな」는 「その」와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そんな」의 특성은 관용표현에도 독보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적은 매우 유익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そんな」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その」와의 비교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そんな」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의미와 지시사의 특성이라는 이중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과 부정 술어와의 상호작용 및 관용표현에 독보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긴다.

## 2.2 「そんなに」에 관한 선행연구

井上(1992)는 「そんなに」가 ‘청자가 관여하는 사태’를 지시할 경우 「そんなに」에 의해 제시된 정보는 ‘청자가 알고 있는’ ‘청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국한된다<sup>4)</sup>고 하였다.

- 
- 2) 鈴木智美(2005)는 「指示詞「そんな」に見られる感情・評価的意味-その意味の実態を探る-」 『留学生日本語教育センター論集』31, p.74에서 “「そんなN」觀察される感情・評価的意味には否定的なものが圧倒的に多いことが分かる。特に、「そんなもの」「そんなこと」「そんな+形容詞(相当表現)+N」という表現は否定的な意味合いを持ってもちいられ、特徴的である”고 언급한다.
  - 3) 深見兼孝(2007) 「日本語教育から見た日本語の指示詞表現(2)-文脈指示の「その」と「そんな」-」 『広島大学留学生教育』 p.9에서 “日本語教育において、「そんな」に関して一定の時間を配当すべきである。また、それ故に教育法や教材の開発がひとつである”라고 주장한다.

服部(1994)는 「アマリ~ナイ」와 「サhod(ソレホド)~ナイ」의 비교를 통하여 두 표현이 정도가 크지 않다는 공통점을 나타내지만, 그 배경에 내재되어 있는 관심은 다르다고 하였다. 즉, 「アマリ~ナイ」는 척도의 방향성에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정방향의 슬어와 호응관계를 보이고, 「サhod(ソレホド)~ナイ」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심리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sup>5)</sup>고 한다.

岡崎(2006)는 「そんなに」를 부정대극표현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키마’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부정대극표현에서는 반드시 스키마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직전 또는 동일한 언어문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そんなに」의 지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sup>6)</sup>

小川(2008)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에 착목하여 「そんなに~ない」와 「あんまり~ない」의 차이에 대해 논하였다. 그 결과 「あんまり~ない」는 발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을, 「そんなに~ない」는 선행문맥이나 세상일반의 기준이라는 비주관적인 기준을 참조한다<sup>7)</sup>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そんなに」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井上은 「そんなに」의 특성 중에는 현장지시의 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부정대극표현에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そんなに」의 기능을 주로 ‘청자의 관여’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청자의 관여’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岡崎의 주장은 「あんまり」에 적용해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そんなに」가 지시사에서 파

4) 井上優(1992) 「指示表現を含む副詞成分の一特徴」 『都大論究』29号 p.20

5) 服部匡(1994) 「アマリ~ナイとサhod(ソレホド)~ナイ」 『日本語日本文学』6 pp.4-5에서 “アマリPナイの使用に対する制約が生じ、アマリPナイにおいてPは、正方向として捉えられる述語でなければならない。肯定的な評価を受けるもののみがアマリ~ナイと共に共起する”라고 설명한다.

6) 岡崎友子(2006)는 “感動詞・曖昧指示表現・否定対極表現について」 『日本語の研究』第2巻第2号 p.85”에서 「否定表現は必ずスキーマが必要であり、また直前または同一の言語文脈に依拠した指示ではない(つまり、照応用法と違う)」라고 설명한다.

7) 小川典子(2008)는 “日本語指示詞の認知的研究-ソ系指示詞における「聞き手」の位置づけ再考」 『言語科学論集』第14号 pp.79-80”에서 “「あんまり~ない」は「私」という認知主体が持つプラス方向への期待を基準として参照・比較することにより程度評価を行い、評価対象が基準値よりも下に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表す表現である”라고 언급하였다.

생된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そんなに」의 지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小川의 주장은 부정과 共起하는 정도부사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あまり」와 「そんなに」의 차이점을 지시사에서 찾으려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문 제시나 용례 분석 등에 관하여 실제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そんなに~ない」와 「あんまり~ない」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단계에 머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そんな/そんなに」와 부정표현이 보여주는 언어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선행연구가 간과한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3.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의 의미와 용법

#### 3.1 지시사 「そんな」의 특성

지시사 「こんな/そんな/あんな」는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 (5) a. こんな映画、いままで見たことがない。  
 b. みんなの前でそんなこと言われたら、誰だって怒るよ。  
 c. 三上さんはあんなものが好きなんだね。

예문(5)의 경우 {こんな+映画/そんな+こと/あんな+もの}의 형태를 취하며 지시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동시에 {こ/そ/あ}가 가리키는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낸다. 또 「こんな/そんな/あんな」는 ‘상대를 깔보고 경시하는 태도’<sup>8)</sup>가 엿보이고, 불쾌감등의 마이너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성을 보인다.

8)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新潮社 p.428 에서는 “「こんな」系統が「何だ、こんなやさしい問題か」「そんなこと、だれにだってできる」のように、対象を見下ろし軽視する態度が強い。”라고 설명한다.

- (6) a. 大人なのに、こんなことがまだ分からないのか。  
 b. 乗り換え間違えないようにね。ーそんなことは分かっているよ。

(6)a.의 「こんなこと」는 ‘어른이라면 누구나가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적인 것’을 의미하고, (6)b.의 「そんなこと」는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식적인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는 불쾌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こんな/そんな」대신에 「こういう/そういう」또는 「こういった/そういった」, 「この/その」등의 지시사로 바꿔 쓸 경우, 마이너스적인 감정이나 평가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6)의 「こんなこと/そんなこと」는 ‘대화현장의 대상’이나, ‘문맥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문에 사용된 「そんな」가 부정과 호응할 경우에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2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

아래의 (7)에 제시된 예문은, 위의 (5)에서 특정지는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 및 불쾌감 등의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6)에서 볼 수 있었던 ‘대화현장의 대상’이나 ‘문맥지시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 (7) a. 当店にそんな本は置いてありません。  
 b. さいわい、うちの会社にはそんな人が一人もない。  
 c. 親に向かってそんな口のきき方は許さない。

(7)a.의 「そんな」가 의미하는 것은 ‘손님이 원하는 그 책의 존재를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상한 책, 품격 떨어지는 책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b.도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이상한 사람/그런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화자의 느낌이 드러난다. (7)c.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말투’라기 보다는 ‘그런 불손한 말투/그런 용납할 수 없는 말투’라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지시사를 「その」로 바꾸어 쓸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3 「そんな」 vs 「その」

이하에서는 「そんな」와 「その」가 지시대상의 범위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지시사의 기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 (8) a. 当店にその本は置いておりません。  
 b.\*さいわい、うちの会社にはその人が一人もない。  
 c.\*親に向かってその口の聞き方は許さない。

(8)a.는 화자의 감정이나 판단은 전혀 느낄 수 없다. 단지 고객이 원하는 ‘그 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8)b.와 (8)c.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말투’에 국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되고 만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その」에 의한 지시대상은 주로 개별 대상에 국한되는 것에 반해 「そんな」의 경우는 지시대상이 개별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동류의 성질이나 특징을 지닌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아래의 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9) a.ね、金魚って、なにをを考えて生きているの?  
 -{そんな/\*その}こと、私が知っているわけがないだろう。  
 b.引越しはね、{そんな/\*その}単純な問題ではありません。  
 c.{そんな/\*その}恥ずかしいことは一生忘れられません。

- (10) a.事故に際しては、{その/\*そんな}時の状況に応じて、処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b.人を{その/\*そんな}身なりで判断してはいけません。  
 c.このカードは会員と{その/\*そんな}家族しか利用できません。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과 공기하는 「そんな」는 화자의 감정과 평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개인의 제한된 범위를 뛰어 넘어 지시사가 가리키는 동류의 성질이나 특징을 지닌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そんな」의 특징은 어휘적인 부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4 「そんな+명사」의 특성

이미 언급한대로 지시사 「そんな」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주로 문법적 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そんな」와 호응하는 어휘적 부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そんなN」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적인 의미가 압도적으로 많다<sup>9)</sup>고 주장하는 鈴木(2005)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そんな」와 ‘명사’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언어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3.4.1 「そんな+もの」와 「そんな+こと」

우선 「そんな」에 연결된 형식명사 「もの」와 「こと」에 대해 살펴보겠다.

- (11) a.人生って、そんなもんだよ。  
 b.世の中はどうせそんなものですよ。  
 c.そんなものを食べているとお腹壊すよ。
- (12) a.そんなことは小学生でも分かる。  
 b.そんなことは嘘にきまっている。  
 c.そんなこと、どうでもいい。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들 예문의 공통점은 모두 부정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문(11)의 「そんなもの」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유익하지 않은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12)의 「そんなこと」는 ‘예상외, 무가치함, 진실성의 결

9) 鈴木智美(2005)는 주2) 전계서 p.67에서 “「こんな/そんな/あんな」を用いると「不快感、や「強い否定の気持」「強い非難の調子」等、否定的な感情・評価の意味が圧倒的に多い」と 언급하였다.

여, 포기'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호응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유도한다.

- (13) a.人生って、そんなもんだよ。がっかりしないでね。  
 b.世の中はどうせそんなものですよ。がんばってください。  
 c.??人生って、そんなもんだよ。おめでとう。  
 d.??世の中はどうせそんなものですよ。嬉しいですね。
- (14) a.そんなことは小学生でも分かる。ばかばかしい。  
 b.そんなこと、どうでもいい。しょうがない。  
 c.??そんなことは小学生でも分かる。すばらしいね。  
 d.??そんなこと、どうでもいい。がんばります。

이들의 호응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そんなもの」「そんなこと」가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人生って、そんなもんだよ。おめでとう」, 「そんなことは小学生でも分かる。すばらしいね」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반어표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대화로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そんなもの」「そんなこと」는 부정적인 표현과는 서로 호응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표현과는 호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そんな+명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3.4.2 「そんな+수식어+명사」

이하에서는 「そんな+수식어+명사」의 형태를 취한 표현이 긍정문에서 사용될 경우와 부정문에 사용될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5) a.そんなくだらない話ばかりするつもりですか。  
 b.そんな冷やかな口調だった。(華)
- (16) a.引っ越しはね、そんな簡単な問題じゃないのよ。(日)

b.そんな画期的なアイデアが当時の私には全然なかった。(畑)

(15)는 「そんな」가 긍정문에 사용되었고, (16)은 부정문에 사용되었으나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결국 (15)는 「そんな+くだらない」, 「そんな+冷ややかな」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에 의한 것이고, (16)은 「そんな+簡単な」, 「そんな+画期的な」라는 긍정적인 느낌의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부정의 술어를 수반함으로써 긍정의 내용이 부정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そんな+수식어+명사」의 형태의 표현은 예문(17)처럼 「비난, 의외, 안타까움, 불평」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18)의 예문처럼 관용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표현이나 (19)의 예문처럼 감탄사로 사용되는 표현은 「そんな」만이 독보적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7) a.そんな大切な情報を言わずに黙っていたのですか。(小)

b.真冬の寒空の下、見知らぬ人のそんな親切が身に沁みた。(す)

c.そんな可愛い子を一人ぼっちにするなんて。(志)

(18) a.そんな馬鹿な!修行に出た尼僧がどこかへ寄り道するなんて。(赤)

b.扉が凶器だなんて、そんな馬鹿な…。(裏)

(19) a.ええ..はあ?..はあ..そうですね..いえ、そんな..わかりました。(開)

b.そんな!片想いなんかじゃ決してない。ぼくは語調を強めた。(不)

c.そんな...考えすぎですよ。(ラ)

## 4.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의 의미와 용법

### 4.1 지시사 「そんなに」의 특성

일반적으로 「こんなに/そんなに/あんなに」등의 지시사는 「暑い、おいしい、簡単だ」등의 형용사, 「食べる、急ぐ」등의 동사, 그리고 「たくさん、きゅうに」등의 부사를 수식하여 그 성질이나 상태의 양이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 (20) a.こんなに暑いと、勉強がはかどりません。  
 b.一人でそんなにたくさん食べるんですか。  
 c.先生はなぜあんなに急いでいたのだろう。

또 부정의 술어와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1) a.君がピアノを弾けるとは聞いていたが、こんなに上手だ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小)  
 b.間に合わないからといって、そんなにあわてないでください。(セ)  
 c.いくら漫画家でも、あんなに上手にはかけないよ。(セ)

위의 예문은 「こんなに~思っていない/そんなに~あわてない/あんなに~かけない」와 같이 지시사는 각각 부정술어와 호응하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은 모두 전제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에 위치한 「君がピアノを弾ける/間に合わない/漫画家」라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후반부의 부정표현은 불안전한 상태가 되고 만다. 또 지시사가 수식하는 것은 「こんなに上手/そんなにあわてる/あんなに上手」로서 「そんな」의 역할은 「上手/あわてる」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시사는 모두 ‘대화현장의 대상’을 가리키거나, ‘문맥지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そんなに」의 용법 중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2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

이하에서는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22) a.マンブクの味噌ラーメン、そんなにおいしくない。  
 b.大人になって分かった。大人はそんなに強くない。(養)

이 경우는 위의 예문과는 달리 ‘대화현장의 대상’이나 ‘문맥지시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자가 상상하거나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사의 기능보다는 정도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3)의 「そんなに」는 다음과 같이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부사’로 분류되는 「あまり、それほど」등과의 치환이 가능하다

- (23) a. マンブクの味噌ラーメン、{そんなに/あまり/それほど}おいしくない。  
 b. 大人になって分かった。大人は{そんなに/あまり/それほど}強くない。

「そんなに」의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전이나 문법서 등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어를 수반하여)생각한 만큼의 정도가 아닌 상태”<sup>10)</sup>로 설명하거나, “부정을 수반하여 정도가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sup>11)</sup>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23)a.의 예문을 대상으로 「そんなに」와 「あまり」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3 「そんなに」 vs 「あまり」

본 항에서는 부정문에 사용되고 있는 「そんなに」와 「あまり」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4) マンブクの味噌ラーメン、{そんなに/??あまり}おいしくないけど、私にはおいしい。

10) 金水敏·木村英樹·田窪行則(1989)는 주1)의 전게서, p.67에서 “程度や量を表す用法として、否定の述語と組み合わせられるものが多い。「讓歩」や「反事実」を表す節を全部に持ち、思ったほどの程度でないという状態を表す”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11) 服部匡(1994)는 주5)의 전게서, p.6에서 “結果的には程度が大きくないことを表す副詞であり、通常考えられないほど高い程度に達することを否定する機能は持たない”라고 한다.

위의 예문에서 주목할 것은 지시사로부터 파생된 「そんなに/それほど」는 허용되지만 정도부사 「あまり」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そんなに」와 「あまり」는 정도의 차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시성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부딪치면 이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에 대해 小川(2008)는 “「そんなに」는 ‘타인과의 공유’, 「あまり」는 ‘화자의 주관’<sup>12)</sup>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そんなに」는 부정과 호응할 경우 지시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あまり」는 지시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あまり」가 (23)a.에서는 허용되었으나 (24)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화자의 주관’이 한 문장 안에서 모순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이라는 개인의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래의 예문(25)에서도 「あまり」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25) a.留学生にとって、月一万円は{そんなに/??あまり}安くない。  
 b.患者さんにとって、人の死は、{そんなに/??あまり}簡単なものじゃないのよ。  
 c.君が{そんなに/??あまり}勉強ができるとは思もしなかったよ。  
 d.外国人にとって、日本語の文法なって{そんなに/??あまり}面白いはずがない。

#### 4.4 부정의 초점

이하에서는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가 부정의 초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6) マンブクの味噌ラーメン、{そんなに/それほど/これほど}おいしくないけど、私にはおいし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26)에 사용된 「そんなに/それほど」는 구체적인

12) 小川(2008)는 주7)의 전제서, p.79에서 “「あんまり～ない」が参照するのは、他者とは共有されていないという意味での「主観的」な基準であると言える”라고 언급하였다.

지시의 대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화자의 생각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これほど」를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これほど」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고 비교하면서 맛이 없다는 것을 구체화시킨다. 이런 의미의 차이는 부정의 초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そんなに/それほど」는 「おいしい。しかし、(期待していた)それほど(そんなに)ではない」로 해석되어 「それほど(そんなに)」가 부정의 초점이 된다. 이에 반해 「これほど」는 「おいしくない。その程度はこれほど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これほど」는 부정의 초점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예문(26)은 내부부정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そんなに」가 부정의 초점으로 기능함으로 부정문의 구성요소 이외의 것을 부정하게 되는 외부부정의 의미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そんなに」가 지시성과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언어현상이라 할 수 있다.

## 5. 나가기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부정과 共起하는 지시사 「そんな/そんなに」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일부현상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そんな/そんなに」를 통해 볼 수 있는 부정 표현으로서의 다양한 면모와 특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そんな/そんなに」의 감정/평가성을 다루고 있는 주요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코퍼스로부터 관련된 용례를 수집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의 경우, ①화자의 감정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기능과 함께 지시사의 기능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その」와는 구별된다. ②「そんな」가 「ものごと」등의 명사와 결합할 경우 부정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형용사 등의 명사 수식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そんな」만의 고유의 언어적인 독특성을 확립하여 관용표현 등에 독보적으로

사용된다.

둘째, 부정과 호응하는 「そんなに」의 경우도 ①부사적인 용법과 지시사적인 기능을 겸비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あまり～ない」와 「そんなに～ない」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そんなふうに」「そう言う/そういった」등의 표현과의 차이점, 반어법에 사용되는 「そんな」의 특성 등과의 연계적인 연구를 통해 부정과 공기하는 지시사의 의미와 용법을 보다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고 체계화 하여 부정표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다.

#### <용례출전>

\*본고에서 사용한 용례는 주로 少納言(KOTONOHA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에서 인용하였음.

(志):加藤諦三(2002) 『志ある子に育て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ラ):志水辰夫(2004) 『ラストドリーム』,(東):立花隆(2004) 『東大講義』 『人間の現在』,(不):山田風太郎(1991) 『不知火軍記』,(裏):森本哲郎(1988) 『日本語表と裏』,(開):加藤秀俊(2000) 『日本語の開国』,(証):森村誠一(1977) 『人間の証明』,(少):桑原三朗(1987) 『少年倶楽部の頃』,(赤):小林久三(1996) 『赤い法廷』(養):養命酒製造の広告文,(華):赤川次郎(1984) 『華麗なる探偵たち』,(日):コーリー・テン・ブーム著,錦織寛訳(2001) 『日ごと新たに』,(七):金水敏外,『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4』

#### <参考文献>

- 井上優(1992) 「指示表現を含む副詞成分の一特徴-「コ(ソ・ア)ンナニ」を例に」 『都大論究』29号 pp.13-22
- 井本亮(2000) 「否定と共起した[指示詞+ほど]の用法について」 『筑波日本語研究』第5号 pp.18-38
- 岡崎友子(2006) 「感動詞・曖昧指示表現・否定対極表現について-ソ系指示詞 再考-」 『日本語の研究』第2巻2号 pp.77-92
- 小川典子(2008) 「日本語指示詞の認知的研究-ソ系指示詞における「聞き手」の位置づけ再考」 『言語科学論集』第14号 pp.57-88
- 金水敏・木村英樹・田窪行則(1989) 『指示詞』(寺村秀夫企画・編集 日本語 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4) くろしお出版 pp.52-67
- 鈴木智美(2005) 「指示詞「そんな」にみられる感情・評価的意味-その意味の実態を探る-」

- 『東京外国語大学留学生教育センター論集』31 pp.61-75
- 服部匡(1994)『アマリ～ナイとサホド(ソレホド)～ナイ』『日本語日本文学』同志社女子大学 pp.1-21
- 林奈緒子(1999)『指示機能をもつ程度副詞に見られる制約について-「こんなに」「あんなに」「そんなに」を例に』『言語学論叢』18 pp.25-38
- 深見兼孝(2007)『日本語教育から見た日本語の指示詞表現(2)-文脈指示の「その」と「そんな」-』『広島大学留学生教育』広島大学留学センター pp.1-10
- 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新潮社 pp.427-428

접 수 일: 2019년 6월 30일  
심사완료: 2019년 7월 28일  
게재결정: 2019년 7월 30일

<Abstract>

### **The Usage and Meaning of Demonstrative respond to Negation in Modern Japanese**

This paper offers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sonna/sonnani」 in response to the negation and draws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case of 「sonna」;

① 「sonna」 is distinguished from 「sono」 because it functions as a demonstrative pronoun which expresses a speaker's emotion or evaluation.

② When 「sonna」 is combined with a noun such as 「mono/koto」, the expression of negation becomes extremely higher and it affects adjectives or other noun modifiers.

③ Since 「sonna」 establishes distinctive verbal uniqueness, it is matchlessl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s.

Second, in case of 「sonnani」;

① 「sonnani」 has twofold characteristics; the usage of adverb and demonstrative pronoun.

②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mari～nai」 and 「sonnani～nai」, it was able to find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uture tasks in this field could b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onna」 with expressions such as 「sonnahuuni」「souuu/souitta」 or characteristics of 「sonna」 in use of irony. Through these researches, it is expected to extend the boundary of the negation study and develop the meanings and usages of demonstrative pronouns logically and systematically.